

34 요한복음: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말씀: 요12:1-11

요한복음은 총 21장, 공생애 3년 반, 예수님 장막절 탄생, 30년 뒤 장막절부터 공생애 시작, 그 이후 3번의 장막절, 공생애 기간 총 4번의 유월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온다.

요1-11장까지 약 3년 반, 12-21장까지 약 1달(마지막 1주의 고난 주간 포함)

7번의 기적을 보이시며 사람들 설득, 11장,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 오늘 읽은 12장은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절 옛새 전 사건(1)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 >,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삶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11:45-57)

앞으로 진행될 십자가 처형 등의 배경을 알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사로의 부활, 사람들이 또 둘로 나뉘(11:45-46): 믿은 사람(45),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사람(46)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47)

산헤드린 공회: '함께 둘러앉는다'는 뜻.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통치) 기관

1. 기원 -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민11:6)에 기원을 둔다. B.C.3세기경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2. 직제 -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제사장 계급을 독점),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하였다(의장 포함 71명).
3. 권한 -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사형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47), 다른 성경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느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은 1명밖에 없다. 49절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명 있고 그 밑에 장관과 같이 여러 일을 맡은 수제사장들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제사장들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긴다.

이들이 공회에서 한 말(47-48)

기적들을 많이 행한다. 사실이다(47).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간다. 그가 메시아로 왕국을 건설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터전은 성전 혹은 그들의 밥벌이 장소

가야바의 대언(49)

가야바, '억압'이란 뜻.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사두개인).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계승되며 종신직이었지만 로마 지배하에서는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며 심지어는 매관매직되기도 하였다. 가야바는 A.D. 18-36년까지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다.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대언을 주심(51-52)

그분의 죽음: 유다 민족 + 널리 흩어진 하나님일 자녀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53),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골로 피신함(54),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 24km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이 옴(55), 사람들이 몰려옴(55), 예수님을 찾음(56), 종교인들의 대비(57)

베다니 잔치(12:1-11)

유월절 옛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옴, 3킬로미터 떨어진

이 사건은 마태26:6-13, 마가14:3-9,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식사는 어디에서 하였나?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나병환자 시몬의 집(막14:3)

여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그런데 눅7:36-50에는 다른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

그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시몬은 아주 평범한 이름(철수 영희 등), 갈릴리에서 일어남
이것은 유대에서 일어남, 거기 여인은 아마도 창녀 같은 직업, 여기는 청순한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2), 눅10:38-42, 마르다는 쾌활하고 일에 분주한 여인, 마리아는 조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나사로 역시 조용한 사람

여기서도 보면 여전히 마르다는 섬기느라 바쁘다. 나사로는 조용히 앉아 있다(2)
마리아의 등장(3), 속이 깊은 여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복합적으로 보면

나드 향유 한 근(파운드), 그분의 머리(마26:7)와 발(요12:3)에 붓고 머릿털로 발을 닦음
마리아는 주님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알고 순수한 사랑을 표시함
성경에 이 마리아는 세 번 나온다(눅10:39; 요11:32; 12:3).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이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청의 결과 주님이 죽으셔야 함을 깨달았고 그것도 유월절
어린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함을 깨달았다. 대다수 남자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즉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 줌
대다수 사람들 장례식에 꽃을 들고 간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리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꽃을 들고 감
나드 향유 한 근, 보통 사람 1년의 봉급

유대인들 더운데 살고 물이 귀하므로 향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나드 향유가 베스트
구약 시대, 다윗의 인구 조사(삼하24),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 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짐승들, 아라우나(24:22) 그냥 가져다가 헌물을 드리십시오.

다윗(24:24),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향유를 부으니 집안에 향유 냄새, 주님의 말씀: 이 여인의 선한 행위를 온 세상 모든 곳에 알려라(마26:13;
막14:9)

당시 마리아는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어로 기록된 그 말씀이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되어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읽고
감동을 받는다. 즉 성경의 보존, 번역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심
무엇을 보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걸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 맞는다.

그런데 속이 올바르면 반드시 걸도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옷 문제, 섬김, 헌금 등,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한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가롯 유다가 등장함(5), 다른 제자들도 동조함(마26:8)
다른 제자들은 그가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함(요6:70).

유다의 말에 감탄함
우리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함

일회용으로 1년치 봉급, 2-3000만원을 써야 하는가?
목사나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사건, 마리아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가?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자, 그는 거기서 돈을 빼가는 도둑이었다.

실제로 가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한 말이다(6).
그는 이미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함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함
보통 좌익에 속한 자들이 이런 위선을 보인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누구보다도 더 돈, 명예, 권력을 많이 챙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기사에서 마리아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면 마르다와 나사로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는 마리아만 중요한가? 아니다.

1. 마르다는 여전히 열성적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92).

지금 마르다는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온 손님이다. 그런데 주인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자기 몸으로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므로 열심히 직장 다니기, 사업 잘 운영하기, 식사 준비, 설거지, 자전거 고치기, 같이 산책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재정 지출 잘 맞추기 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르다의 식사 섬김이 있어서 그 모임이 기쁨이 되었다. 먹어야 기쁘다.

마리아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잘 깨달은 뒤 이렇게 꼭 필요한 때에 향유 옥합을 깨서 바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섬길 일이 매우 많다.

모두 마리아가 되려 하면 교회는 유지되지 않는다. 즉 대다수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된다.

즉 교회는 다수의 마르다로 구성되어야지 마수의 마리아로 구성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

2. 자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

그런데 9-11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옴, 결국 종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

즉 그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17-18 참조

나사로만 나타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동으로 증언됨

사도행전 이후의 예수님의 증인,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교자를 뜻함

우리들 역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한다(롬6:3-4).

결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즉 마리아는 예배, 마르다는 일, 나사로는 증인

바로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함.

사람인지라 100% 균형을 잡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교회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함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함(10)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함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요 8:44-45)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

나의 섬김

지난주 기회가 있어서 몇 가정과 함께 식사함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자기의 기득권, 전통, 생각 다 내려놓고 진리,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사람들만 온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목회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걸하는 목회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교회의 발전과 부흥: 목사의 성품 등을 보면 불가능하다.

다만 목사는 진리만을 전하려고 애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Total truth를 가르친다.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닷새 남았다.

그분의 사역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제자들도 모른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점에, 외로운 시점에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나사로는 부지런히 증언하고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목사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 바란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시간으로, 재물로, 열정으로